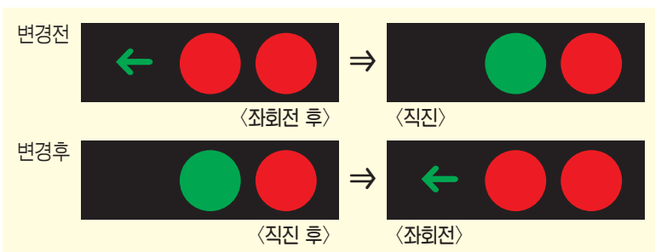
교차로 신호등 '직진 후 좌회전' 전환

운전자 혼동 급정차·경적 '소동'

교통사고도 잇따라 안내 표지판 설치를

광주지역 주요 교차로 신호 체계 변경



지난 19일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롯데마트 사거리.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등이 들어오자 3대의 차량이 서서히 움직였다. 직진 신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 미리 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내 빨간색 등이 들어오자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20분 후 광산구 수완동 현진1차 아파트 앞 사거리. 좌회전 신호 후 녹색등이 들어왔지만 머뭇거리는 차들이 눈에 띄었다. 신호등은 이미 직진 신호로 바뀌었는데, 앞차들이 꼼짝을 않자 곳곳에서 경적이 울렸다. 차에서 내려 뒷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올 들어 교차로 신호등 체계가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전환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좌회전 후 직진' 신호에 익숙해 있던 운전자들이 혼동한 것이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께 광산구 수완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이모(32·남구 노대동)씨의 승용차가 앞서가던 김모(32·광산구 수완동)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신호 체계가 바뀐 줄 모르고 좌회전 후 출발했다가 적색등이 들어오자 급정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며칠 전부터 수완지구 내 교차로 신호등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 없다"면서 "운전자들이 매우 당황해 하고 있다. 출·퇴근길에는 경적 소리에 귀가 따가울 정도"라고 말했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우선 전환대상인 '좌회전 후 직진' 교차로 141곳 중 60곳을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꿨다. 이는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직진 차량에 신호를 우선 부여하고 동시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하는 게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 효율적이라는 경찰청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호 체계 변경 사실을 알리는 플래카드나 표지판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경찰은 오는 3월 말까지 신호체계 변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호등 체계가 바뀐 교차로는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1번·8번 도로, 광주여대 사거리, 광산구 운남동 삼성아파트 정문 앞, 광산구 운남동 금구중학교 삼거리, 광산구 신가동 진만초등학교 사거리, 남구 진월동 진월호수 삼거리 등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기존 신호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미리 예측하고 차를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가 바뀐만큼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호 체계 변경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초·중·고 건물 대부분 지진 발생 땐 '무방비'

내진설계 광주 11.2%·전남 3.9% 불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된 '지진에 위험한 학교'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건물 1천 89곳 가운데 내진설계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63곳에 불과하다. 광주는 조사 대상 285개교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이 32개교로 11.2%에 머물렀고, 전남은 804개교 중 32개교로 3.9%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내진설계 조사 대상 학교 중 1천26개교의 건물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지어졌다는 것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앙이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같은 광주·전남지역 학교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같은 기간 1천㎡ 이상, 3층 이상 전국 초·중·고교 건물의 내진설계 평균 비율은 12.6%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진설계=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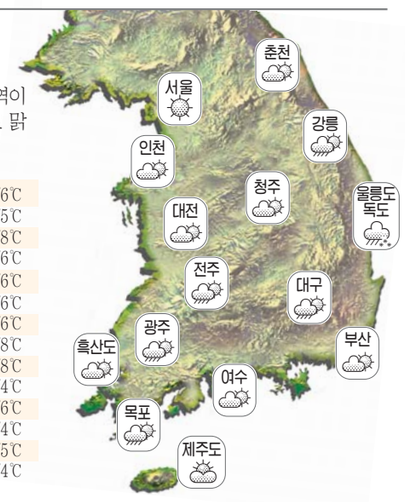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9분 해짐 17시 49분 / 달뜸 10시 19분 달짐 23시 22분

축축한 출근길

오전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비온 뒤 갬	4/6℃
목 포	비온 뒤 갬	4/5℃
여 수	흐린 뒤 맑음	6/8℃
완 도	흐린 뒤 맑음	6/6℃
구 례	비온 뒤 갬	4/6℃
해 남	비온 뒤 갬	6/6℃
장 흥	비온 뒤 갬	6/6℃
고 흥	비온 뒤 갬	5/8℃
순 천	비온 뒤 갬	6/8℃
영 광	비온 뒤 갬	3/4℃
진 도	흐린 뒤 맑음	6/6℃
전 주	비온 뒤 갬	3/4℃
남 원	흐린 뒤 맑음	3/5℃
흑산도	흐린 뒤 맑음	4/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5:20 17:38	10:39 23:03
여수	00:06 12:14	05:57 18: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날 씨						
최저/최고	-3/2	-5/3	-5/6	-2/7	-3/8	0/9

광주지검, 선거사범 집중 단속

유관기관 간담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2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선거사범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선거사범 단속 실무자 10명이 참석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리는 행위는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흑색선전 등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향후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제 구축 등을 통해 신속·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지검 공안부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선거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성폭력범 꼼짝마"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청사 여경기동수사대 앞에서 '원스톱(ONE-STOP) 기동수사대' 발대식을 갖고 어린이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전담 수사에 착수했다. '원스톱기동수사대'는 기존 '원스톱지원센터'와 '여경기동수사대'가 통합된 것으로 어린이·장애인의 성폭력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택시비 아끼려… 가벼운 부상에…

'얌체 119 이용자' 돈 받는다

귀가 때 교통비를 아끼려고 119 구조차량을 부르는 음주자나 산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헬기를 요청하는 등산객 등에게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이용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한 국민에게 구조·구급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9서비스 유료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19 구조·구급대원과 구급 차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동물 구조나 음주자 귀가, 차량·주택 잠금장치 해제 등에 구조·구급 역량이 낭비돼 정작 화재와 교통사고 등 긴급한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산객 안전사고 때 소방헬기가 출동하면 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지만, 다리를 삐거나 손이나 발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당수 등산객들이 헬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이용자 부담 원칙'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연합뉴스

아이티 성금 모금

어린이재단 전남본부

아동복지전문기관 어린이재단은 오는 2월26일까지 아이티 지진대참사 긴급구호를 위한 '나눔 SOS'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남·여 누구나 후원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어린이재단 전남지역 본부의 후원계좌(농협 653015-51-132647 어린이재단)로 입금하면 된다.

아이티 긴급구호 캠페인에 대한 모든 문의는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061-272-0042)로 하면 된다.

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 회원기관 자격으로 아이티 긴급구호를 시작했으며, 초기 구호사업비로 2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모금을 통해 추가 긴급구호사업비를 마련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